

SNUAC Brown Bag Seminar Series, Spring 2022

북한과 북베트남의 토지개혁 비교연구

노 현 종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북베트남(베트남민주공화국)은 각각 1946년과 1954년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3주 만에 토지개혁을 완료하였다고 선전해왔다. 약간의 과장이 섞여있지만 전반적으로 토지개혁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덕분에 김일성 정권은 일정 수준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1954년부터 실시된 북베트남의 토지개혁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였다. 일부 농민들은 억울하게 희생당하였으며 이 때문에 베트남노동당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하였으며 당시 서기장이었던 쯔영진은 사임하였다. 이 때문에 두 국가에서 토지개혁은 다르게 기억된다. 2016년 북한은 토지개혁 7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하였던 반면 2014년 베트남 국립 역사박물관이 토지개혁 6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행사는 격렬한 반발로 인해 2주만에 전시회가 종료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과 북베트남의 토지개혁을 비교역사분석을 통해 사회과학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일제 식민 통치와 프랑스의 식민통치 구조의 차이점, 상이한 계급구성, 토지개혁의 과정을 국가의 능력 (State Capacity)과 하부구조적 권력 (Infrastructural Power)을 통해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노현종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며 통일미래아카데미 아카데미 플래너,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에서 공부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 (석박사통합과정)을 취득하였다. ‘북한 신정체제의 종교사회적 기원’, ‘민족통일론에서 시민통일론으로: 민족주의 통일론의 위기와 대안’ 등이 있다.

일시: 2022년 4월 13일 (수),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220호)